

대구광역시

안동시의회, TK 행정통합 반대 '결사항쟁'

이철우·홍준표 행정통합 추진
즉각중단하고 도탄 빠져있는
민생 살리는데 온 힘 쏟아라...



안동시의회의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가 '활화산'이다.
시의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들은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
실하고,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들의
견수령 없이 광역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

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라고
못박았다. 때문에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
통합 논의가 아닌 공동의 생존전략을 먼
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
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 △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경북·대구 행정
통합 절대 반대 △경북도의회는 시도민
의 뜻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로, 경북의
정체성과 시도민의 자존심을 보장할 것

△국회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
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반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존중할 것
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25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안동시의회의원 18명 전원
이 공동발의,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
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라
고 맹폭을 가했다.
무엇보다 "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
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
단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송명주 기자

울릉군 새로운 상징물(New CI) 선포

군민&독도의날 맞춰 선포식
남한권 울릉군수, "화합·성장
번영의 뜻 내포 균형 이끈다"



울릉군은 지난 25일 변화하는 울릉군
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
(New CI)을 선보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화합·성장·번영의
뜻을 내포한 만큼 이를 모토로 향후 균형
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릉군의 CI는 2003년 개발돼 오랜
세월 울릉군의 얼굴 역할을 했다.

동해의 일출과 푸른 바다를 나타내는 좋은
의미가 무색하게도 육질기를 연상케 한
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객대를 열
어갈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상징물이 필요하
다는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3
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CI 선정과정은 지난 7월 민선8기 기념행
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언론인에게 첫 선

을 보였다.
울릉군의회 중간보고를 거쳐 8월 약 20
일간 누리집과 SNS를 통한 울릉군민 선호
도 조사를 했다.

조사에 무려 1226명이 참여, 37가지 안에
투표를 했다.

이 중 참여자의 52%의 선택을 받은 본
안이 선정됐다.

추가 개발과정을 거친 후 10월 울릉군의
회 최종보고 및 균형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새로운 울릉군의 얼굴은 '울릉'이라는 세
상 어디에도 없을 특별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 정체성을 강조했다.

K-컬처와 한글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문자 그대로를 활
용, 'o'과 'u'가 반복되고 대칭되는 특징을
심미적으로 잘 표현했다.

"서로 마주하다! 울릉!"이라는 뜻을 내
포, 군민들의 화합과 지금까지의 성장, 그
리고 미래의 번영이 서로 마주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세련되고 간결하게 담은 임팩트 있는 디
자인으로 지난해 개발된 도시브랜드인
에 메달드 울릉도와 컬러 매칭으로 균형미를
추었다.

새롭게 개발된 CI는 심플하지만 다채
로운 응용이 가능, 울릉군의 공공디자인
기능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산국왕 납시오' 울릉군이 마련한 '우산국왕 납시오' 행사가 성황리에 막내렸다. 행사는 지난 25, 26일 이틀간 울릉도 도동항과 사동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열렸다. 행사에서 '안용복 기념사업회'는 독도수호 정신을 기리는 안용복장군 추모 등불춤과 조선시대 무예를 복원한 24번 무예를 선보였다. (사진=울릉군제공)

단체장 일정



조재구 대구 남
구청장은 28일 오후
남구가족센터에서
열리는 남구시
어플리케이션
개소식에 참석
한다.



이만철 고령군수는
28일 오후 군수
실에서 열리는 고령
군 대표행 중간점검
회의에 참석한다.

"尹 지지율, 朴 탄핵 직전 수준과 비슷..."

리얼미터 대표, TK 이탈 우려
윤 부정 평가 1%p 오른 70%

보수 핵심지역인 TK에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지지율
국면과 비슷하다.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2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이날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
이 20%로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보다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지층
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엔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주 만에 10%
대로 떨어졌고 그때도 대구 경북, 부산 경
남 집토끼 층이 이탈하면서 박근혜대통령
이 탄핵까지 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갤럽 조사 기준)로) 박 전대통령
이 2016년 10월에 25% 지지율을 유지하다
11월 셋째 주 갑자기 17% 한 번 찍고 바로
5%로 떨어져 탄핵이 됐고 리얼미터의 같
은 20%대 후반 보이다가 19%로 갔다가 마
지막에 9%대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보다는 완만하지만 윤석
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 비슷한 수준
으로 떨어지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지
지율 급락은) 동아일보가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거래했
다고 지인들한테 얘기했다'고 보도한 뒤
급전직화했다"며 "지금 그때처럼 명태균
씨 관련 보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라
미 식으로 나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 지지가 바로 대구 경북에서 크게 나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윤석열 정권 위기는 분명하다고 표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만 18세 이
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20%로 2%p(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1%p(포인트) 오른 70%다.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를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로 전주대
비 2%p포인트(p) 떨어져 9월 2주 조사와
동일하게 취임후 최저치로 다시 내려왔다.
부정평가 비율은 전주와 비교해 1%p
오른 70%로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
제가 15%로 1위를 차지했다.
TK지역의 경우 잘하고 있다가 26%인 반
면 못한다'가 60%까지 올라섰다.

조사는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22
일부터 24일까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4%였으며 표본오
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감염목 화목, 용재 등 활용 이동과정 발생 인위적 9곳

소나무재선충병이 경북을 넘어 전국의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
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
도 산림을 망가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소나무재선충관리가 엉망인
셈이다.
이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폭로했다.

김의원은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
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
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
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인위적인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
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라
북도 화순과 나주,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
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 특
별단속 결과,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2024년 3월 기준 15건으로, 5년간 총 456
건이 적발됐다.

조치현황은 방제명령이 440건으로 전체
의 96.5%를 차지했다.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 9건(2.0%)과 7건
(1.5%)에 불과하다.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 이곳저곳을 이동, 실
제 이를 통해 인위적인 확
산사례도 발생, 대책 마
련이 요구된다"고 꼬집었
다.

그는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철저히 근
절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감염목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소나무재선충
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단속 계
획을 사전 알리고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
리고 있다.

사전안내 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을 방
문,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영수
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무단 이동 및 취급·
활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소나무재선충 관리 허술... 산림 황폐화

홍준표, 한동훈 행보 '철부지 난동' 규정

홍준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적
하라고 뽑아줬더니 대통령 공격만
페이스북에 여당 내 분란"만 지적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
의힘 대표의 행보를 '철부지 난동'으로 규
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떠오르는 특별
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내 친윤(친 윤석열)
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한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적하
고 뽑아 줬더니 야당에는 한마디도 안 하
고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 내 분란만 일
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부지

난동도 정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교체한 정권
망치려고 한 줘도 안 되는 레밍 데리고 도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덧
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임기 말도 아
니고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만 조장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여적외(적과 함세해) 고국
에 맞서는 죄가 된다"고 말하는 등 한 대표

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
아 "변화와 쇠퇴를 방
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
질로 알량한 이득을 보려는 소수의 사
람도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친윤계를
겨냥했다.

조여은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月刊 정치와시림
곧 독자 결의로 다가갑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마당극 공연 성료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찾아가는 공연 사업 마당극청아청아내팔청아를 23일은 효령면 효령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월 24일은 의흥면 행정복지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각각 14시에 총 2회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은 군위 지역 내 교통약자와 문화 소외지역에 예술 공연을 직접 찾아가 선보임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 누구나

동등한 문화예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과 지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지역 동아리 단체 '얼수 민요단'의 흥겨운 민요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



박재성 기자

대구시 축산물 적법 취급 점검

지난해 784개소 점검 55곳 적발
의식 사례 수거 DNA 검사 의뢰
부적합 판단 경우 행정처분 방침
진열 고기 '식육판매표지판' 배부



대구시는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28~내달 8일까지 2주간 시 및 9개 구·군 단당차,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실시하며 영업장에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면 해당 고기는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84개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개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2개소, 과태료(과징금)처분 3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26개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했다.

대구시는 현재 축산물이력법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시,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뿐이지만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와 형사고발까지 가능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DNA동일성 검사 후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이를 소재지 관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로 통보해 주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축산물이력법 관할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식육판매업소에서 진열 중인 고기에 대해 식육의 종류와 등급, 도축장명 등 표시사항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표지판 4,000여 개를 제작해 11월 중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소비자들이 DNA 동일성 검사를 해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축산물 취급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청소년·군민 어울림... '2024 달성군 청소년 축제' 성료

달성군청소년지도협 행사
청소년 경연대회 10팀 경연

'2024 달성군 청소년 축제'가 지난 26일 현풍포산공원에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군청소년센터와 달성군청소년지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 달성에서 빛나다'를 주제로 30여 종의

다양한 체험·놀이·먹거리 부스 운영, 다채로운 무대 공연, 특별 초청 가수 공연 등의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고 화합한 이번 축제는 지역 사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축제에서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청소년 경연대회에서는 3대 1의 열띤 경쟁 속에 본선에 오른 10팀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뽐냈

다. 마지막으로 특별 초청 가수인 '담현'의 공연이 이어지며 청소년들과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 축제가 마무리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올해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달성군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계명문화대, 하반기 채용설명회 면접 진행

식품영양조리학과 등 전공분야
인사담당자 기업 주요 직무 설명

계명문화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하반기 주요 기업 채용설명회 및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7일 호텔항공의식관광학과 및 식품영양조리학과 소

속 4개 전공분야 재학생과 졸업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LG D&O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채용설명회에 이어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LG D&O 레저사업부 HR팀 인사담당자가 직접 기업의 주요 사업 및 직무, LG그리터스 산학 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취업 지원자들과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는 캠퍼스 리크루팅 방식으로 운영됐다.

황태용 기자

수성구 '사월책문화센터' 개관식 개최

주민 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호대차 서비스 내달 1일부터

대구 수성구는 26일 사월책문화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두 달여 간의 시범운영 때 접수된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점은 개선한 다음 정식 개관했다.

사월책문화센터는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시설이다.

812.2㎡ 규모의 공간에 주민 휴게공간, 자료실, 열람실, 프로그램실, 어린이 놀이공간을 갖췄으며 인문·철학·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1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사월책문화센터는 쿠키클래스, 중·장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작가 전시회,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시범운영기간제한된 도서대출과 상호대차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사월책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달서구, 대구시민햇빛발전소 준공

대구 달서구가 지난 25일 성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추진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달서1호"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달서구 의원, 달구벌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 조합원, 시민햇빛발전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달서1호는 달서구에 최초로 건립된 시민햇빛발전소로, 달구벌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달서구가 유류부지를 유상 제공해 33.39kW의 규모로 설치됐다.

황태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석구석 95%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기부금의 95%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전해진 따뜻한 온기, 올해 사랑의열매가 맺은 또 하나의 사랑의열매입니다.

2023년 모금금액 8,305억 (올해까지)

2023년 지원금액 7,446억 (올해까지)

지원 대상

1,719 / 1,010 / 486 / 379 / 1,787 / 1,792 / 273

지원 분야

3,882 / 939 / 615 / 450 / 382 / 755 / 240 / 183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지원내역은 2023년 사랑의열매 나눔기공입니다. 지난해 7,446억 원으로 전국 3만 개 기관과 함께 43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제21대 경북소방본부장에 박성열 소방감 취임

박성열(사진) 소방감이 제21대 경북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다.
신임 박 경북소방본부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농생물학과와 경북대학교 산업

공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97년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대구 달성소방서장,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소방청 장비기획과장, 서울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을 거쳐 경북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다.

박 경북소방본부장은 일선 소방서, 소방청 등에서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탁월한 현장 지휘 능력과 풍부한 행정 역량은 물론 긍정적인 사고와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하다는 평이다.



경북도의회-캄보디아 상호발전 교류 한 몫

캄퐁툼주와 문화행사 농업에너지 분야협조

경북도의회가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은 지난 25일 캄보디아 국회를 방문, 수스야라(Suos Yara) 국회 외교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방문단을 맞이한 수스야라 위원장은 금번 캄퐁툼주와의 교류의향서 체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2026년 한국-캄보디아 방문의 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
신라시대를 가진 경북도와 앙코르 시대를 가진 캄퐁툼주간의 문화행사를 희망, 영남대-동국대 등 도내 대학과의 새마을사업의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앞서고 있는 농업가공, 태양광, 바이오메스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과 캄퐁툼 지역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연구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올해는 한국과 캄보디아 재수교 27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외교 관계가 많이 회복돼 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친근한 나라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2006년 인연을 계기로 양지역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은 26일(토) 프놈펜에 위치한 경북문화통상교류센터를 방문, 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문화통상교류센터는 2010년 1월 26일 준공되어 현재 100% 임대 완료됐다.
한국 기업 및 현지 기업이 입주, 연간 9만 2000불의 수익을 내고 있다.

올해에는 45개 기업의 180개 품목이 전시, 한국제품의 인지도를 높였다.
가공식품 분야에서 20개 업체가 참여, 약 14만 불(2억원) 규모 수출 성과를 올렸다.
캄보디아 최대 한인 쇼핑몰인 케이그라운드(The K-GROUND) 병스나우점 개소식과 경북 우수농산물 판촉 행사에 참가, 도내 우수농산물 판촉 활동을 했다.
관측전에서 도내 농산물 제품인 조미김, 홍삼 가공품, 음료수, 가공식품 등에 대한 현지 고객 홍보와 시식 행사도 곁들였다.
캄보디아는 농업이 GDP의 22%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국가다.
최근 2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기록, 2022년에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교역이 더욱 활발해졌다.
한국은 2023년 캄보디아에 9,000만 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했다.
이 중 음료가 60%를 차지했다.
지난 8월에는 메콩 국가 최초로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박 의장은 "도내 농축산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일행은 프놈펜 쉼베리워즈(VERYWORDS) 현지공장을 방문, 현지 법인장 등과 만나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경북도와 캄보디아 간 상호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쉼베리워즈는 경북 포항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캄보디아 공장은 2023년 설립하여 종업원 50명에 연간 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캄보디아 내 친환경 전기 이륜차, 충전기와 같은 E-모빌리티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에 앞장, 경북도의 온실가스 감축 외교의 첫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김성용 기자



영천시의회, 초심 잃지 않고 시민과 동행

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동의안 등 23건 의결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가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4일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 안전 의결에 앞서 이영우 시원의 '철도 유희부지 활용', 이영기 시원의 '익스트림스포츠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으로 5분자 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영우 시원의 금호읍 봉정역 철도 유희부지에 탄소배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도시 숲과 황토맨길길을 조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의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영천시가 교통의 요지인 점을 활용, 경량 비행기, 모터스포츠 등 최근 각광받는 익스트림 스포츠 부지 조성으로 관련 민간업체를 유도할 수 있다면 대규모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동시에 이바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상임위원별 심사한 조례안인 '영천시 의무부

담이나 관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성태(사진) 영천시의회 의장은 "제241회 임시회 기간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동행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청도군의의회 주요 안건 31건 심의·의결

2025년 군정 업무보고 청취 군민위한 정책 힘쓴다 강조



청도군의의회가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의회는 지난 14~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이다.
각 부서별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

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 군정운영 방향을 살피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은 다른 시각으로 분석, 의견을 냈다.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심도 있게 다뤄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임시회 기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태이 군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군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의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종술 군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했다.
전종술 군의장은 "내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면밀히 살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여은 기자

영주시의회, 청년 농업인 지원 방안 강구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영주시의회가 영주댐 주변 종합 개발사업지 등 총 5개 사업장을 방문했다.
지난 25일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방문에서 영주댐 주변 종합 개발사업지에 방문,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영주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지에서는 생활 체육 공간 조성의 진행 상황을 점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협력단은 조성사업지와 영주어울림가족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 사업의 진척도를 확인, 청년 유입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청년농업인 허브센터 구축 현장을 찾아 청년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은 "현장방문으로 각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 향후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전국 첫 三代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학생 가족의 안전까지 챙기는 으뜸 경북교육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삼대(三代)'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
교육은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가톨릭상지대학교(안동) 등 경북 지역 13개 대학교에서 하는데 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가족이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

시로 일상생활 중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가족들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교육은 경북교육청이 올해 7월 경북 지역 13개 대학교와 체결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업무 협약'을 구속력 없는 협약(MOU)에 따라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과정으로 △이론교육(심폐소생술 교육) 30분 △실습교육(성인, 소아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실습) 90분으로 진행된다.
김성용 기자

권기훈, 공사현장 관리 환경정비 철저히 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하는 대책 마련하라 당부...

권기훈(사진) 대구시의원은 27일 대구복합혁신센터의 개관 지연과 관련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신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했다.
복합혁신센터는 대구혁신도시의 핵심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실시

공으로 인해 2023년 6월 예정이었던 개관이 연기됐다.
개관일을 2024년 7월로 재조정했으나 하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올해 12월로 또 다시 연기한 상황이다.
권 시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하자 보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대구시는 하자 보수공사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보수공사를 개관에 맞춰 완벽히 마무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구 복합혁신센터 하자 보수 공사에 투입된 예산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를 보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추가 하자 발생 및 그로 인

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현장에 쌓인 자재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언급하며 "공사 현장 관리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권 시의원은 "대구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복합혁신센터 개관이 늦어진 만큼 대구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개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태용 기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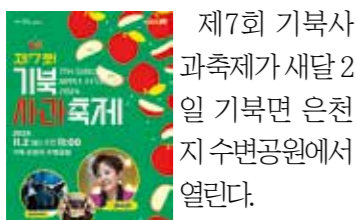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가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임승필 군의원은 "울진군 대학생 장학사업이 재경 울진학사 및 일부지역 대학 기숙사생에게만 혜택을 지원하지 못하는 일반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군의회는 집행부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정희 군의회 의장은 "집행부는 군정주요업무보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나타난 현안 사업들에 대한 논의된 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주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 '기북사과축제'



제7회 기북사과축제가 새달 2일 기북면 은천지수변공원에서 열린다.

기북사과축제는 포항시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다. 사과 최적의 재배지에서 생산된 기북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축제에서 기북면민 노래자랑과 아우라 난타, 골든비보이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로봇 퍼포먼스, 사과 곱질 길게 깎기 대회, 사과 중앙 맞추기 도전, 사과 툴렛 등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기북 명품사과 홍보 전시관, 산포대 6차 산업 체험관이 운영되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반값 직거래 장터도 마련된다.



안강읍, 소외계층 나눔 행사

안강읍 새마을부녀회원 30여명이 지난 24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윤병복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이상철 안강농협 조합장 및 안강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내 35개 마을의 어려운 이웃 210가구에 400만 원 상당의 물화장지 등을 전달했다. 박현정 안강읍 새마을부녀회장은 "비록 작은 물품이지만 우리 부녀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새마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관광 섬 울릉... 우산국왕 납시었다

우산국왕 납시오 큰행사
안용복장군 추모 등불춤
조선시대 무예를 복원한
24반무예 집중 박수갈채

울릉군이 마련한 '우산국왕 납시오' 행사가 성황리에 막내렸다.

행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울릉도 도동항과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공동 시장조사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우산국왕 납시오' 행사는 울릉도에서 번성했던 고대 해상왕국 우산국을 모티브로 왕과

왕비가 직접 행차해 울릉도 방문객을 맞이하고 환송한다는 콘셉트(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로 진행했다.

울릉도의 해양 전통문화와 정신을 홍보했다. 여행전 기대감 조성하고 여행후 여운을 선사, 울릉도 재방문 동기를 이끌고, 신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취미로 다양한 공연도 함께 펼쳤다.

'우산국왕 납시오' 행사에는 유수의 예술·민간단체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오랜 시간 고증과 시연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고취대로 손꼽히는 경주시립예술단이 우산국 고취대를 재현했다.

'안용복 기념사업회'에서는 독도수호 정신을 기

리는 안용복장군 추모 등불춤과 조선시대 무예를 복원한 24반 무예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울릉도 아리랑 보존회의 울릉도와 독도아리랑 공연 △푸른울릉독도가구기모임과 울릉특수수난 인명구조대는 도동항 바다위에 대형 태극기를 띄우는 퍼포먼스를 펼쳐 울릉도 주민의 삶과 독도수호 의지와 애국심을 키웠다.

덧 행사도 다채로웠다.

대한민국 한복 명장이 직접 제작한 우산국왕복식을 입고 왕과 왕비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SNS에 인증하면 울릉특산물 선물 받는 체험 행사는 큰 인기를 끌었다.

울릉군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번 행사가 울

릉도와 독도의 역사·문화·정신적 가치를 알리고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울릉도가 지닌 천혜의 자연과 인문·생태자원을 활용, 세계적인 관광 섬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격퇴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독도대첩과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가 출범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10월은 경북도가 지정한 독도의 달이다.

10월 25일은 울릉군민의 날 및 독도의 날로 이번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경북도와 울릉군이 주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주관했다. 정윤환 기자

영덕군민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인기

영덕군민의 1등 안전키움이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인기가 상승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치안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4일 창수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해 공공기관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견학에 나선 창수초 학생과 지도교사 34명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철통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살펴봤다.

동네에 설치된 CCTV 찾기, 안전 퀴즈 풀기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 높이는 다양한 놀이형 체험교육에 참여해 큰 호응을 보였다.

영덕군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기존 각 부서에서 설치 목적·기능에 따라 각기 관리되던 CCTV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했다.

관내에 설치된 CCTV 1065대를 전문화된 관제요원이 설명서에 입각, 연중무휴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 결과 각종 범죄 및 재난과 안전 위협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청송하늘 울려 퍼지는 체육대회 함성

청송은 지금 가을체육대회로 한창이다.

군은 전국 및 도 단위 규모 체육대회를 잇달아 열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아름답게 단풍이 물드는 가을을 맞아 안전하고 내실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대회 유치로 청송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전국 최대 규모 백일홍 화원으로 유명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2024 청송사과 트레일런 대회로 축포를 터트렸다.

△26,27일 이틀간 제1회 청송 황금사과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31일 제3회 청송 황금사과배 전국 고교씨름대회 △11월 2,3일 제23회 경북지사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 및 제12회 청송사과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1월 3일 제19회 청송 낙동정맥 등반대회가 열린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가 예정돼 많은 선수와 관계자가 방문, 지역에 활기가 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는 매 대회마다 1000명 이상의 선수와 관람객이 청송을 방문한다. 지역 상권의 소비 활동이 촉진되고 지역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청송 황금사과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대회다.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한다. 윤병문 기자



울진농업기술센터, 아생화 분경 교육

울진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울진군아생화연구회원 20여 명 대상으로 아생화를 활용한 분경 교육을 했다. 교육에 완성된 작품 중 우수한 분경은 새달 8~10일까지 열리는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 홍보부스에 전시한다. 아생화분경을 포함한 다양한 국화 분제도 함께 전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사진=울진군제공)

울진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울진군아생화연구회원 20여 명 대상으로 아생화를 활용한 분경 교육을 했다. 교육에 완성된 작품 중 우수한 분경은 새달 8~10일까지 열리는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 홍보부스에 전시한다. 아생화분경을 포함한 다양한 국화 분제도 함께 전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사진=울진군제공)

주낙영, 한·중 협력 새로운 문화의 장 연다

경주시, 중국 시안·장자제 방문 문화·관광분야 협력 본격 확대

주낙영 경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중국 시안시와의 자매결연 30주년 행사와 장자제 시와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21~26일까지 6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대표단은 이동협 경주시의장, 이상걸 경주상의 회장, 김유식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도 동행했다.

시안은 중화문명의 발상지이자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도시로, 현재는 서북부 개발의 중심지이자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역이다.

경주와 시안은 역사문화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1994년 자매결연 후 문화, 관광, 체육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시안시는 지난 8월 경주에서 열린 '2024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해 청소년체육 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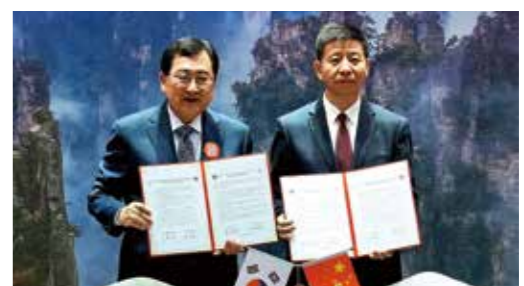
경주시 대표단은 지난 21일 팡훙웨이 시안시 당서기와 학술 MOU 체결을 진행한 뒤,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산시성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와 '시안-한국주간' 행사에 참가해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를 적극 홍보했다.

대표단은 23일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로 자리를 옮겨 왕훙빈 시장과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장자제시는 매년 8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유 도시로, 경주시와는 2022년 온라인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정으로 양 도시는 문화와 관광 분야 협력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21일 중국 시안시에서 팡훙웨이 시안시 당서기와 학술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주시장은 협정 체결식에서 "장자제와 신라 천 년의 고도 경주가 협력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 이번 교류가 양 도시 간의 우정을 한층 심화하고, 나아가 한·중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야들아 아침밥먹자" 쌀 소비 촉진 행사

건강한 식습관 중요성 아침식사 필요성 알려

청송군 관내 농·축협과 청송군학부모회장협의회는 지난 23~25일까지 "야들아! 아침밥먹자!" 쌀 소비 촉진 계몽운동을 했다.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청송농협 △한서농협 △남청송농협 △청송영양축산농협은 지난 14일 청송교육지원청과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MOU)'을 체결, 이번 계몽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청송군 학부모회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계몽운동은 지난 23일 청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4일 진보·화목·도평·안덕초등학교 △25일

파천·이전·부남초에서 진행됐다.

각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쌀 소비를 독려하는 활동이 펼쳐졌다.

계몽운동 기간 학생들에게는 청송군 내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김밥과 주먹밥 등 다양한 간식이 제공,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과 아침 식사의 필요성을 알렸다.

박명숙 청송초 학부모 회장은 "삼형제의 엄마이자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챙겨줄 수 있었던 뜻깊은 하루였다. 이번 행사를 도와준 농·축협 관계자분들과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덕섭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아침밥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 지역 쌀 소비가 확대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한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쌀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병문 기자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농촌형 저출생 극복 사례 지속 가능 공동체 구현



경산 사회적 기업 현판식

경산시는 지난 22일 지역 내 사회적기업 3개소에 현판을 제작·전달했다. 사회적기업 현판 제작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금심 고취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회적기업 현판은 문화유산 활용 교육프로그램과 유물 전문 보존처리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한결(대표 김현우, 플라스틱 재질 판별 기기 '플라스캔(plaSCAN)')으로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2개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리플라(대표 서동은),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며 커피와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이라는 모토를 실현하는 ㈜레오인터내셔널(카르투시카커피로스터리, 대표 이준희)에 전달됐다.



3사관학교-㈜풍산 MOU

육군3사관학교는 25일 (주)풍산(이하 풍산)과 사관생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관생도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관생도들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실습 경험을 쌓아 방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풍산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경험과 첨단 인프라를 제공해 사관생도들이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 기술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학년 전자공학 및 계공학 전공자 중 성적 우수자와 전공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생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청도, 같이놀자 온가족! 돌봄페스타 지역 어린이들 알뜰시장 나눔 실천 농촌형 저출생 극복 성과 발표 호응

청도군은 26일 청도 야외공연장에서 같이놀자 온가족! 돌봄페스타 행사를 어린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많은 가족 단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가을 소풍을 테마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저출생 문제가 낱아 심각해짐에 따라 결혼·임신·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으로 행사장을 찾은 아이와 어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했다. 행사 1부에서는 △러키 로(킷)키즈셀러던 △로컬푸드 부스 △글로벌 짬뽕 등 20여개 이상의 다채로운 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스로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지역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알뜰시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2부 본 행사는 서삼열(취다로리인 대표)의 청도군의 성공적인 농촌형 저출생 극복 모델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농촌형 저출생 극복 성과 발표에 이어 1부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기부와 가족이 함께한 희망비행기 날리기는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진 가수 선의 토크콘서트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가족보물찾기 플로깅은 즐거움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행사로 준비돼 참가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돌봄페스타 행사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본 행사가 세대 간 상호 돌봄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은 기자

경산 임당유적 출토 '고인골' ... 심화 연구 기반 마련

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 방문 문화유산 연구 활용 프로젝트 논의 내년 전문가 초청 국제 학술대회 예정

경산시는 지난 7일 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을 방문해 얼굴 복원의 권위자인 캐롤라인 윌킨슨 교수와 페이스 랩(FACE LAB) 연구팀과 함께 경산 임당유적 출토 고인골의 얼굴 복원 심화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산시와 영남대학교 박물관 관계자(경산박물관 박장호 고고학 박사, 김대욱 학예연구원 고고

학 박사, 김현진 연구원 고고학 석사)는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 페이스 랩(FACE LAB)을 방문해 캐롤라인 윌킨슨 교수와 페이스 랩(FACE LAB) 연구진을 만나 경산 임당유적과 압록국 문화유산 연구 활용 프로젝트 및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계획을 공유했다.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 페이스 랩(FACE LAB)은 안면 분석, 얼굴 묘사, 법의학 등을 다루며, 법의학 사건의 포렌식 식별과 역사적 인물의 얼굴 복원에 중점을 두는 연구소로 알려져 있다.

캐롤라인 윌킨슨 교수는 법의학적 안면 재건의 권위자로, 영국 리처드 3세와 이집트 랍세스

2세, 바흐 등 역사적 인물의 얼굴 복원을 담당한다.

이번 만남을 통해 페이스 랩(FACE LAB) 연구진은 임당유적 출토 고인골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얼굴 복원 성과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영남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얼굴 복원 심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 임당유적전시관 개관 시 페이스 랩(FACE LAB)의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시 임당동에 건립 중인 임당유적전시관은 압록국의 사람들의 생활상과 유물을 전시하는 고고 전문 박물관으로 2025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다.

고령군, 생활인구와 소통 간담회 개최

수도권 중장년 25여명 참석 생활인구 관련 프로그램 소통

고령군은 25일 고령군 생활인구센터에서 고령군을 방문한 생활인구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통 간담회에는 이남철 고령군수와 서울 및 경기 등의 수도권 중장년 생활인구 25여명이 참석해, 생활인구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생활인구 관련 프로그램, 고령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령군은 2023년 1시군-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첫 시작을 내딛었으며, 사업 성과들을 바탕으로 대가야시장 내 생활인구센터 조성, 생활인구 위케이션사업(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생활인구 팬슈머(팬이자 소비자)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력 추진하고 있다.

배영백 기자

성주군 별고을 아카데미

고령군은 22일 고령군민체육관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과 고령소방서·고령경찰서, 의용소방대, 한국전력공사 고령지점, 달성KT 지점

등 6개 기관·단체에서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지진·전기차 화재와 건물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해 △자재 소방대의 초동 대응 △상황 보고 및 전파 △통합연계훈련 △시설 피해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사고 수습 대응 체계를 총괄 점검했다.

도재훈 기자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마무리

제안·제출안건 18건 심의 2025년도 업무계획 질의

칠곡군의회는 24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18건을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제305회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제안·제출안건 18건(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을 심의하고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칠곡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주요업무 성과가 계획 대비 차질없이 수행되었는지"와 더불어,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상승 의장은 "지난 10개월간의 열정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올해 남은 2개월도 칠곡군의회가 군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칠곡군의회는 8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 하며, 이로써 올해 회기 중 제306회 정례회만을 남겨 두게 되었으며, 회기의 기본일정은 향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칠곡군의회 홈페이지로 공개할 예정이다.

MY UNIVERSE GYEONGSAN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불편하다 시민들의 행복경산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구미 옥성휴양림, 숲속 체험

구미도시공사 옥성자연휴양림은 지난 25일 산림청과 함께 구미시 옥성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행복, 드림플러스' 숲속 체험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지속과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가족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삶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지원 행사다. 구미시 옥성초등학교 전교생 및 교직원들이 참여했고, △휴양림 숲해설 체험 △친환경 소재 목공예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등 호응을 얻었다.

구미도시공사 이재웅 사장은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문경, 아동건강 뮤지컬 진행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5일, 건강한 치아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뮤지컬 '동물나라 충치소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연에는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500여 명이 참석했고,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율동을 통해 호기심과 시각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뮤지컬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치아 건강 정보와 양치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익 센터장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는 것이 평생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미아시아육상대회 성공 개최 준비”

구미시민마라톤 대회 마무리 행사 약 5천여명 시민 참여해 구간별 응급구조사 배치 대응 대회 250여명 안전요원 투입

구미시는 지난 27일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 구미시민마라톤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대회는 3km 걷기, 5km(개인 및 학생), 10km(개인 및 단체) 등 총 세 가지 종목으로 나뉘어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력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대 행사장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다양한 홍보 및 판매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와 가족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체육공원은 마치 축제의 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3km 걷기 코스에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여유롭게 낙동강체육공원의 가을 정취를 즐기며 산책을 즐겼다. 5km와 10km 코스에서는 주로 30~40대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해 열린 경쟁과 함께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회 코스는 낙동강체육공원 일대를 감싸도록



설계돼, 참가자들이 가을빛으로 물든 공원을 배경으로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시는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응급구조사를 500m마다 배치하고 250여 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해 참가자들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했다. 대회는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돼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내빈들도 시민들과 함께 코스를 달리며 대회의 분위기를 북돋웠다. 김 시장은 "이번 대회는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였다"며, "내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미시는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이를 계기로 육상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가겠다는 계획이다. 송영주 기자

김천시 주최 경북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140명 경합... 본선 70명 선발
단체부문 3팀 개인 6명 수상
모델 한복 갈라쇼 · 드레스 쇼

김천타임웨딩타운에서 김천시가 주최한 경북도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가 지난 24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대회에는 경상북도 최초로 김천시에서 개최되며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해,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대회 참가자, 가족과 지인,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로 대회장가를 가득 채웠다. 행사는 1부 시식 행사, 2부 본대회인 개인전과 단체전, 3부 시상식 순으로 진행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와 소프라노 가수의 노래, 전문



시니어 모델의 한복 갈라쇼와 화려한 드레스 쇼 등으로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에서 140명이 경합을 벌여 본선에 진출한 70명과 지역을 대표하는 5팀의 단체가 진출해 열린 경연을 펼쳤다.

단체전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기발한 소품과 댄스 등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

내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으며, 개인전은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자세로 자신들의 끼를 맘껏 발산해 관객들을 흠뻑했다.

시니어 모델 관련 교수들을 비롯한 시니어 모델 관련자, 기획전문가, 패션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정한 심사를 한 결과, 단체부문 3팀, 개인 6명이 수상했다.

오랜 기간의 경험이 있는 심사위원조차 지금까지의 어느 대회보다도 놀랍고 감동적인 대회였다는 심사소감을 밝혔다.

영예의 대상은 하군자, 최우수상 임숙희, 우수상 박정화, 베스트드레서상 홍수임, 포토제닉상 김부광, 인기상 손복득이 차지했으며, 단체전 대상은 금오산 피꼬리(구미), 최우수상 퍼펙트사인(김천), 우수상 경운대 유아미(구미)가 차지했다.

의성, 전통시장 운영 현황 점검

의성군은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전통시장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의성전통시장, 금성전통시장, 봉양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 장육(점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성군 공유재산인 장육에 대한 개인 간 불법거래 근절과 운영합리화를 위해 시행된다.

점검반은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각 시장 담당 읍면 및 상인회로 구성되며, 점포별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합동 점검 실시 후 각 전통시장의 현황을 현황화하고 빈 점포 사용자 및 미허가, 미갱신 사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군수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활력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의성, 道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날인에 관한 규제 완화

의성군은 지난 22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한 '2024년도 경상북도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북도와 시·군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정부혁신과 적극행정'분야를 평가·심사했다.

군이 발표한 사례는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날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빈집 및 소규모 건축물 해체 비용 감소와 함께 도시미관개선, 우범지역 예방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앞으로도 군민이 우선인 행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 돌입

추가경정 예산·조례안 심사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상주시의회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회 건등을 처리하고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정예산 대비 1억 7,475만 원(0.01%)이 증액된 1조 3,149억 7,475만 원을 심사하게 된다.

11월 6일 제7차 본회의까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5일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고, 6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Yes 문경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꿈
문경새재도립공원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932종 동식물의 보글자리 환경부지정 습지보호지역
돌리네습지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MG 문경시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영양군 노인대학 졸업식

(사)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25일 영양군종합복지회관강당에서 제39기 노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53명의 노인대학 졸업생과 지회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고, 노인강령 낭독, 개근상, 정근상 수여, 졸업증서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개강한 제39기 (사)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매주 금요일 명사초청 특강, 인문학 강좌, 요가·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움의 터전이 되어왔다. 올해는 총 53명의 졸업생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빛나는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안동 여성예비군소대, 환경 봉사

안동시 여성예비군소대가 24년 한해 낙동강 클린안동 가꾸기 행사와 국토대청결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안동시 여성예비군소대는 지난 18일 낙동강 클린안동 가꾸기 행사의 일원으로 낙동강변(영호대교~안동대교) 일대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낙동강 클린안동 가꾸기 행사는 안동시 여성예비군소대 등 지역 7개단체가 낙동강변 일대 책임지역을 할당받아 연간 지속적인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는 국토대청결 행사로 매월 셋째주 금요일 아침(06~07시)에 실시하고 있다.



예천군, 독도의 날 행사

예천군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 공직자가 '독도사랑 티셔츠 입고 출근하기 운동'을 펼쳤다.

예천군은 매년 독도의 날인 10월 25일 전후로 군민들에게 '독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 전 직원이 나서 다양한 퍼포먼스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직원들은 독도사랑 티셔츠 입고 하나되기 운동에 참여하며 군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독도의 날을 알렸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독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지닌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이자,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중요한 근거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차원에서 독도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추진 가시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해 용마루공원~강동 용혈터널 구간 내년 설계 시작 2028년 완공 목표 "하트섬 · 용마루공원 관광 개선"



영주시는 용마루공원~강동리 용혈터널 구간을 잇는 관광순환보행교를 조성할 예정이다(사진 가운데 용마루 공원과 호수 너머 강동리가 보인다)

영주시는 영주호 주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은면 금광리 용마루공원에서 강동리 용혈터널까지 약 600m 길이의 보행교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행교 외에도 주차장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영주호 주변 순환로 조성 사업 중단된 용마루2공원과 용혈터널 구간을 연결해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영주호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걷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탐방로를 제공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반영한 보행교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영주호의 주요 관광 명소인 하트섬과 용마루공원 일대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차장 문제 해결과

함께 영주호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예천농산물축제 기간 '쪽파페스타' 행사 병행

예천쪽파 우수성 홍보 프로그램 전국 중구 유통 60% 이상 차지

예천군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2024 예천농산물축제'를 개최하며, 새롭게 선보이는 '예천쪽파페스타'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관람객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예천사과의 강자를 가리는 '예천사과월드컵'이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번 축제에서는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양근호) 주관으로 '예천사과월드컵'과 '예천쪽파페스타'를 양대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인 '예천쪽파페스타'는 예천쪽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천쪽파는 관내 460여 농가에서 143ha 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중구용 1277t, 앞파용 15t가 생산



되고 있다.

예천쪽파는 2018년 미국 시애틀의 한인 농장에 중구를 수출한 이후 우수한 품질로 입소문이 나 전국 중구 유통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맛있는 앞쪽파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천군은 중구의 우수성을 활용해 앞쪽파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확대하고, 쪽파 산물과 가공식품,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예천쪽파 소비 촉진 및 브랜드화를 목표로 이번 '예천쪽파페스타'를

기획했다. '예천쪽파페스타'는 "예천에서도 우수한 중구 생산이 있어낸 쪽파가 있다. 그레 맞아! 우리에게도 쪽파가 있었다!"라는 슬로건으로 쪽파 김치 요리 경연대회, 쪽파 먹거리 시식, 쪽파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 이벤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읍면과 단체 부스에서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예천의 고품질 농특산물과 다양한 6차 가공식품들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직접 맛보고 즐기며 예천 농산물의 맛과 품질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김학동 군수는 "2024 예천농산물축제에서 예천쪽파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정성껏 만들어낸 뛰어난 품질의 농특산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예천만의 탁월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려 농가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열린 마음으로 축제장을 방문해 마음껏 맛보고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봉화, 고위직 공무원 폭력 예방교육

봉화군은 지난 24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읍면장 및 실과장을 비롯해 6급 팀장 이상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이자리 소담힐링연구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리더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행동, 성인지 감수성 점검,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와 함께 최근 대두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포함해 진행했다.

박한국 봉화군수는 "직장 내 폭력문제는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근절을 위해 고충상담 창구 상시 운영,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4대 폭력 예방과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상기 기자

제4회 예천군 복지박람회 성황리 개최

유관기관 · 군민 등 300여명 참여 30여개 사회복지시설 부스 운영

예천군은 지난 26일 예천읍 도효자마당 일대에서 사회복지시설·단체, 사회보장 유관기관과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예천군 복지박람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복지박람회는 '함께라서 행복한 복지 예천'

이라는 주제로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예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주관해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복지 어울림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호명읍 리움어린이집 원생들의 귀여운 댄스공연으로 시작으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 종사자 등 9명이 예천군수, 군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로 부터 표창을 받았다.

안동시,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 나선다

12월 말까지 40억원 예산 투입 고사목 방제 · 예방 나무주사 진행

안동시는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유지 위해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 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총력 방제에 나선다.

12월 말까지 1차 방제사업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감염목, 기타 고사목 등 3만 5천여 본의 고사목 방제사업을 실시했다.

이듬해 3월 말까지 2차 고사목 방제사업 및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진행해 9만여 본을 방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14일(월) 경상북도, 산림청, 시·군, 유관기관 등 86명이 참석한 소나무재선충병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대책과 공동 대응·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 훈증제 미 무단훼손, 방제 작업목 열감 사용 등 부주의한 행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안동 증가 가양주 상품화 정책 토론회

산업 현주소 검토 · 트렌드 분석 시장 진출 판로 확보방안 논의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동 K-푸드(가양주) 콘텐트 개발 중 안동 증가 가양주의 상품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가양주진흥회가 협력해 안동 종가집만의 차별화된 맛과 향을 가진 가양주 상품화, 가양주체험 프로그램, 가양주 페어 등을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적 트렌드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는 23일 경북문화재단 콘텐트진흥원 1층 창조아트홀에서 진행됐으며 안동 증가주산업의 현주소 검토 및 트렌드를 분석하며, 시장 진출

을 위한 판로 확보방안의 논의 등 가양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회에서는 안동 증가 가양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박사의 '영남 선비의 일거를 통해본 술문화 연구 (조성당일기)'를 중심으로 △창아트 정희창 대표의 '전통옹기 술 도구들은 어떻게 현대화하여야 하는가?' △권은중 와인 칼럼니스트의 '정체성과 상품성-이탈리아 전통 음식문화의 현대적 계승 사례를 중심으로' 등 세 명의 발표자가 주제별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안동 증가 가양주를 직접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테사주 △옥연주 △이수동주 △노송주 △금계주 △추모주 △속영주 등 안동 증가에서 직접 만든 가양주뿐만 아니라 증가 가양주를 활용한 카테일도 맛볼 수 있었다. 송명주 기자



행복한 동행 영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기간: 2024. 10. 7. (월) ~ 11. 5. (화) 30일간
- 감사기간: 2024. 11. 26. (화) ~ 12. 2. (월) - 예정
- 제보대상: 시정 전반(예산낭비, 위법·부당한 사항 등)
- 제보방법: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cjstk0215@korea.kr)



시민의 소중한 바람을 담아
더 나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갑균



의원
하기태



의원
이영기



의원
이영우



의원
우애자



윤리특별위원장
김용문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
배수예



의회운영위원장
권기한



부의장
김종욱



의장
김선태

